



전라북도지회 전주시지부를 찾아서

양반 도시 베이커리를 지키는 파수꾼

가지가지 뻗어있는 강줄기가 모여 커다란 바다를 이루듯 전국의 지회지부가 모여 (사)대한제과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베이커리〉는 전국 지회지부의 왕성한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지회지부 탐방'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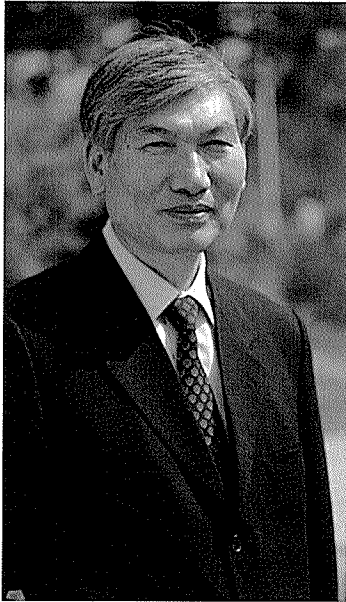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다섯 번째 만남으로 양반의 미덕을 지키는 전라북도지회 전주시지부를 찾았다.

글·박소희 기자 사진·정영주

전라북도 전주시지부의 임원들은 요즘 단 한사람의 결원 없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잦다. 그동안 전라북도 도지회장과 지부장을 겸임했던 강대운 지회장이 지난 4월 1일 자로 지부장의 바통을 강현희 지부장(풍년제과 경원본점)에게 넘겨주는 인수인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공동 구매 사업과 공장 직거래 등 수익사업 강화

지난 10년 동안 전라북도 지회장과 전부시지부장을 도맡아왔던 강대운 지회장은 요즘 감회가 새롭다. 강현희 신임 지부장에게 지부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일일이 전수해주면서 앞으로 지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새로운 환경이 새삼스러운데다가 지난 10년의 세월



강현희 지부장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탓이다.

“앞으로 더 큰일을 해야겠죠. 그동안 해오던 일은 물론 지부가 회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강대운 지회장과 힘을 합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갈 생각입니다.”

전주시지부의 살림을 꾸려야하는 강현희 지부장의 당찬 소감이다. 전임자인 강대운 지회장과 힘을 합치면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게 강 지부장 생각이다.

전주시지부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오랜 경기 침체로 불황에 빠진 전주시 제과업체의 부흥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먼저 영세한 자영 제과점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작한 우유, 과일 통조림 등의 공동 구매 사업이 회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본격적인 공동 구매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위생콜지 등의 허가제품을 대상으로 공장 직거래를 통해 싼값에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정직과 성실로 꾸려나가는 협회 살림

현재 전주시지부의 회원 가입률은 90%를 웃돈다. 사무국장은 물론 임원 모두 전주시의 모든 제과점을 방문해 회원 가입을 독려한다. 90%의 높은 가입률은 임원들이 힘든 걸음을 마다않고, 열심히 발품을 판 결과이다. 전주시지부는 자영 제과점은 물론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익도 함께 대변하기 위해 임원들의 비중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했다. 적대적인 라이벌 의식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고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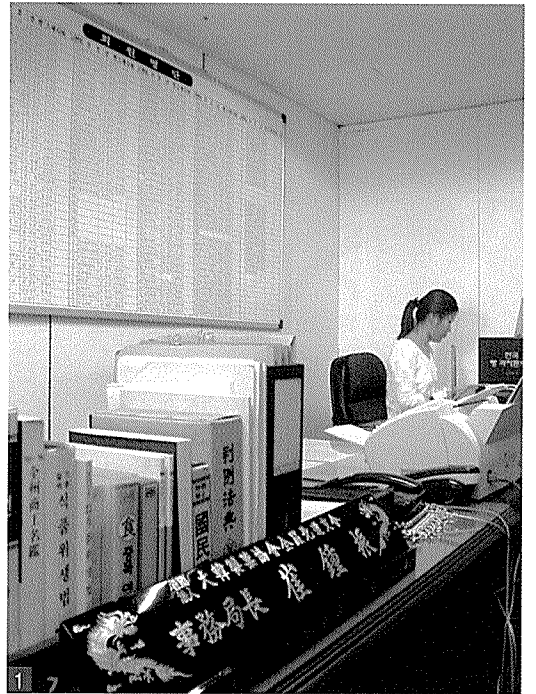
전주시지부는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신고한 회원업소만큼 회비를 내야 하는 중앙회에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철저하게 지키는 한편, 공동구매사업, 공장 직거래 등 수익사업을 강화해 지부 살림을 키워가는 중이다. 오직 정직과 성실로 지부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전임자인 강대운 지회장과 강현희 지부장의 공통된 생각이다.

선(善)과 효(孝)의 미덕

전주시지부는 예로부터 양반도시로 불리며 예(禮)를 중요시여기는 전주에서 선(善)과 효(孝)를 베푸는 단체로 공식 인정받았다. 전주시가 2000년부터 해온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행사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공급한 선행을 인정받아 지난해 ‘자랑스런 선행단체’ 표창패를 받은 것.

이와 별도로 임원들은 틈틈이 사회복지시설에 회원들이 모은 빵을 전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최종진 사무국장은 “회원들 모두 이런 봉사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별 어려움이 없다”고 전한다.

양반의 후예답게 넉넉한 인심과 나눔의 기쁨을 아는 전주시지부의 임원들과 회원들의 모습에서 올해 탄탄한 지부 운영의 결실을 가늠하게 해준다. ㉓



1. 전라북도지회 전주시지부는 16명의 임원과 3명의 직원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2. 전주시 지부는 2003년 전주시로부터 자랑스런 선행단체 표창패를 받았다.
3.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지부 사무실. 전라북도지회와 함께 쓴다.